

## 구로병원 2024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지난 18일 오전 11시 구로병원 이음 회의실에서 2024년 구로병원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열렸다. 사측은 대표위원인 정희진 병원장을 비롯해 신정호 기획실장, 윤순정 경영관리실장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참석했다. 노측은 대표위원으로 송은옥 지부장과 함께 전임간부가 참여했다. 한편, 노동조합에서 최삼호 총무부장과 김진아 선전부장이 새로운 위원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희진 병원장, 어렵지만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정희진 병원장은 “2월 말부터 시작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병원 구성원들이 심적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은 시기인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 오늘 저희 회의에서는 중요한 논의들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병원운영에 대해 걱정 섞인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회의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산안위를 하게 되니 노사가 직원들을 위해 하는 일을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좋은 기회” 라고 말했다.

### 송은옥 지부장, 병원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하자.

이어 송은옥 지부장은 “현재 사태가 길어지고 있어 조합원들도 걱정이 많다.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

건의료노조에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이 사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해 교섭도 한 달 정도 미룬 상황이다. 병원이 하루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조합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 라고 말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유일한 공식기구가 바로 산안위다. 정희진 병원장의 말처럼 산안위를 통해 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산안위를 통해 사소한 안전이라도 꼼꼼히 살피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 현장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1탄》 2024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1. 최저임금 : 9,620원 -> 9,860원

2.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급여 인상 : 3+3에서 6개월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6개월 연장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200-4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 및 결과 >

안건		답변
지난 산안위 이행 점검 건	<b>【위험성 평가시 노동조합 참여】</b> 2023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위험성 평가시 노동조합 참여 요구안에 대해 연 2회 노사합동점검하기로 의결하였으니 세부사항 정하도록 하자.	6월 중 가능한 날 정해서 노사 실무담당자 3명으로 하여 구성하자. 점검 부서 및 체크리스트는 노사 실무진이 만나서 함께 정리하자.
	<b>【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전 실무회의 위상 조정】</b>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로 격상하자. 실무회의는 논의로 끝나는 데에 비해 소위원회는 일정정도의 권한이 있어 안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사전 실무회의의 형식으로도 본회의 전 노사 실무진 간의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니 현행 유지하자.
	<b>【도급업체 내 안전보건협의체에 노동조합 참여】</b> 산안법 64조 도급인(병원)과 수급인(주차, 미화 등 협력 업체)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회의록도 공유해 달라. 노조참여를 통해 안건의 더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노조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입장을 전달해달라.	참여는 어렵고 회의록 열람은 가능하다. 안전에 대한 것은 달마다 하고 있고 교육도 다 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b>【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의 업무 방안 마련 건】</b> 외부고객과 외부고객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당사자간의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도 원내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자.	직원 간의 사고 또는 내원객 간의 사고든 구로병원 지침 상 안전관리자와 중대재해 담당자가 함께 출동하게 되어 있다. 시민재해로 판정이 나면 총무팀쪽에서 관장을 하고, 중대재해로 판정이 나면 안전관리자가 관장을 한다. 혹은 외부인의 폭력에 의한 직원 사고로 판정이 나면 관련 절차 진행하고 있으니 현재 프로세스를 유지하자.
	<b>【공상추정제 기준 마련 건】</b> 공상추정제란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을 밝히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상추정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자. 공상추정제를 통해 부서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더욱 손쉽게 직무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취지는 동의하나 단위병원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능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연금공단쪽에 재해보상기능 강화 필요성을 어필해야 한다.
근로자의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	<b>【손목보호대 지급부서 확대 건】</b> 2023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중환자실에서 환자 체위변경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손목보호대를 지급했고 원내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환자실 외에 손목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에 확대 지급하도록 하자.	3개 병원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마친 후 노사 실무진이 함께 TF형식으로 모여 세부 지급기준 논의하도록 하자.
	<b>【시설팀 근무복(하의) 질 개선 건】</b> 기능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하의로 개선하도록 하자.	안산병원과 함께 샘플테스트 하기로 했고 다음 주 수요일(4/24일) 시설팀에 전달 예정이다. 제품이 확정되면 코드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